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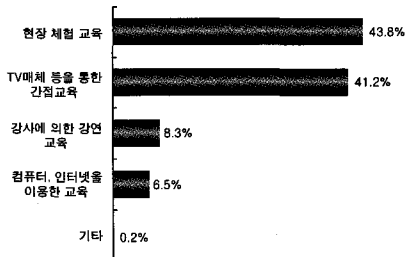
21세기 국민 환경의식조사(5)

자료제공 환경부

7. 향후 환경관련 참여희망 교육분야

결과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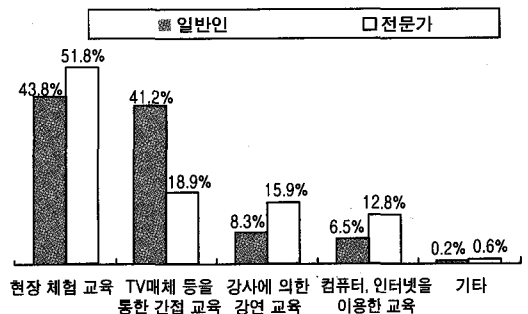
- 향후 환경관련 교육에 참여할 기회가 생긴다면, 참여하고 싶은 교육분야가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현장체험교육'(43.8%)과 'TV매체 등을 통한 간접교육'(41.2%)을 지적한 의견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다음으로 '강사에 의한 강연교육'(8.3%), '컴퓨터·인터넷을 활용한 교육'(6.5%) 순으로 나타남.
- ▣ 현장체험교육의 경우, 전문강사·교육현장·부대지원 시설 등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Base = 1,500 >

결과분석

- 향후 환경관련 교육에 참여할 기회가 생긴다면, 참여하고 싶은 교육분야가 무엇인지 환경전문가 그룹에게 질문한 결과, '현장체험교육'(51.8%)을 지적한 의견이 1순위로 나타남. 그 다음으로 'TV매체 등을 통한 간접교육'(18.9%), '강사에 의한 강연교육'(15.9%), '컴퓨터·인터넷을 활용한 교육'(12.8%) 순으로 나타남.
- ▣ 환경전문가들의 경우, '현장체험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상대적으로 'TV 매체를 통한 간접교육'에 대한 비중은 일반인에 비해 낮은 특징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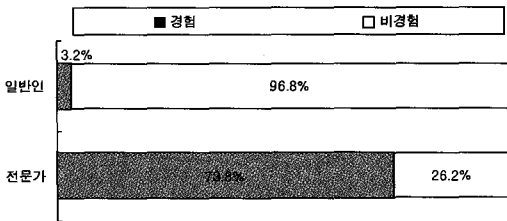


8.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 경험



결과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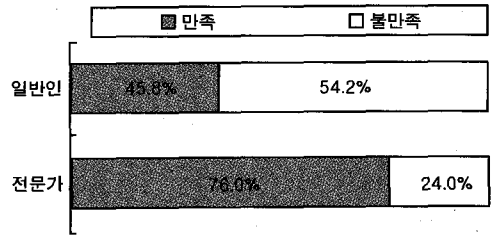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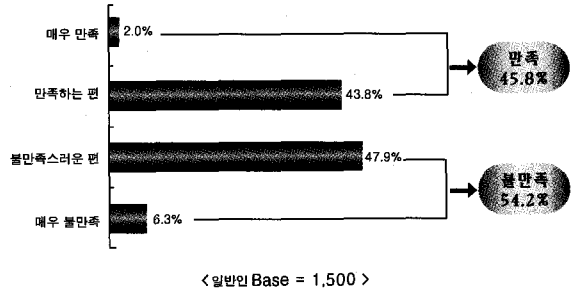
-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총 1,500명 응답자 중 3.2%(48명)로 조사됨. 방문자 48명 중 남성(85.4%), 20대(50.0%), 대재이상 고학력자(70.8%), 화이트 칼라(37.5%) 계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환경전문가 그룹 중 방문경험은 73.8%(121명)로 나타나 일반인에 비해 환경부 홈페이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 현재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자들의 대부분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특성을 반영하듯 대다수가 학생층인 것으로 나타나, 아직까지 일반시민들의 방문은 저조한 것으로 분석됨.



8.1.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만족도

결과분석

-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자 48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질문한 결과, '만족한다'는 의견은 22명(45.8%), '불만족한다'는 의견은 26명(54.2%)으로 각각 조사됨.
- 환경전문가 그룹 방문자 121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질문한 결과, '만족한다'는 의견은 92명(76.0%), '불만족한다'는 의견은 29명(24.0%)으로 각각 조사되어, 전문가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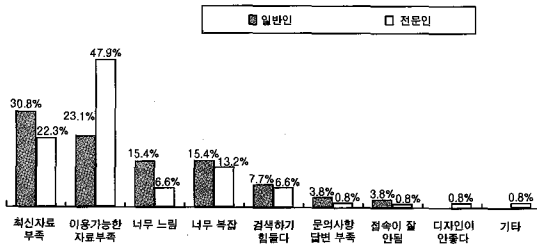
8.2.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불만족요인 (* 중복응답)

결과분석

-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자 48명 중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26명을 대상으로 불만족 요인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최신자료 부족'(30.8%), '이용가능한 자료 부족'(23.1%) 등 정보(contents) 부족을 지적한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환경전문가 그룹(121명) 역시 주요 '불만족 요인'으로 '이용가능한 자료 부족'(47.9%), '최신자료 부족'(22.3%), '복잡하다'(13.2%) 등을 지적한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전체적으로 정보(contents)의 양과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됨.



국민환경의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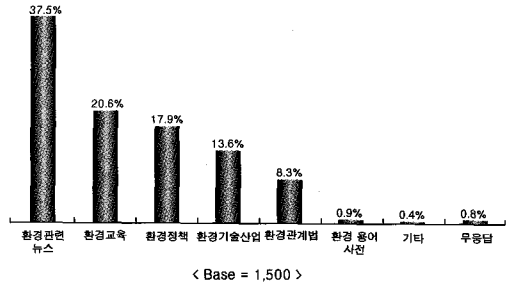
9. 향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제공 요망 정보

결과분석

□ 향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길 바라는 정보유형으로는 '환경관련 뉴스를 지정한 의견이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인터넷 환경에 맞는 신속한 환경관련 정보의 제공 필요성이 높게 나타남. 그 다음으로 '환경 교육 자료'(20.6%), '환경정책 관련 자료'(17.9%), '환경기술·산업관련 정보'(13.6%), '환경관계법'(8.3%)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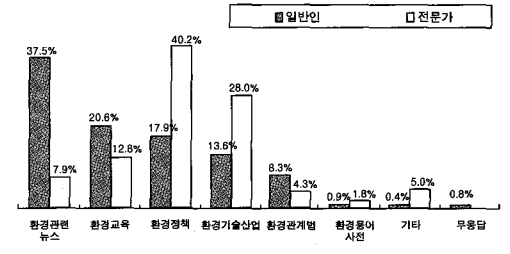
■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환경관련 뉴스'가 제공되길 바라는 의견은 여성(41.8%), 50대 이상(41.4%), 부산/경남(41.7%), 대구/경북(43.1%), 광주/전라(43.7%) 거주자, 블루 칼라(41.2%), 주부(41.3%), 학력이 낮은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실시간(real time) 정보전달의 특성을 갖는 인터넷을 통해 신속한 환경관련 뉴스의 제공 필요성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서비스 방안 마련이 요망됨.



결과분석

□ 향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길 바라는 정보유형으로 환경전문가 그룹의 경우 '환경정책 관련 자료'(40.2%), '환경기술·산업관련 정보'(28.0%), '환경 교육 자료'(12.8%) 순으로 나타남.



PART- II. 환경보전운동의 실천정도

1. 환경보전 활동의 실천정도

결과분석

□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요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실천 정도를 살펴보면 '자연환경 훼손방지'(93.5%),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86.2%), '수돗물 아껴쓰기'(84.1%), '일회용품 안쓰기'(80.6%) 등에 대한 실천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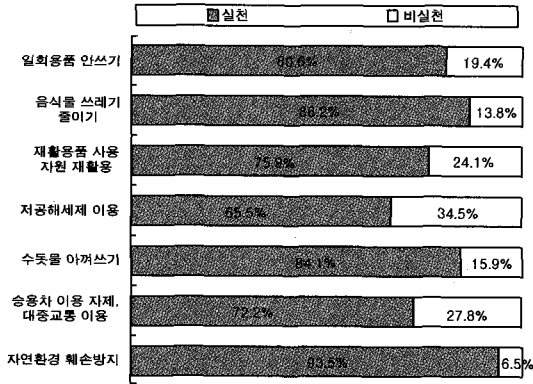
■ 환경보전 활동 중 기본적인 '자연환경 훼손'이나 실질적인 가계부담이 있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수돗물 아껴쓰기' 등에 대한 실천 정도는 매우 높으나, 실질적인 폐해가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저공해세제 이용'이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해서는 실천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지속적이며 적극적인 홍보가 요망됨.

[도표참조]

1-1. "일회용품 안쓰기"에 대한 실천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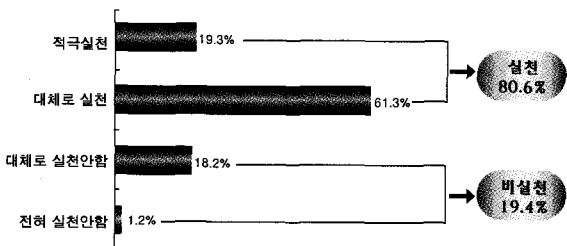
[1 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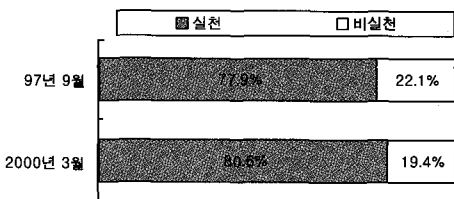
결과분석

□ "일회용품 안쓰기"에 대한 실천 정도에 대해 '실천하고 있다'는 긍정 의견은 80.6%(적극 실천 19.3%, 대체로 실천 61.3%)로 나타남.

■ '일회용품 안쓰기'를 실천하고 있다는 의견은 기혼여성(89.7%), 연령이 높고 학력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며, 직업별로 자영업 종사자(84.7%)에서 실천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주목됨.



< Base = 1,5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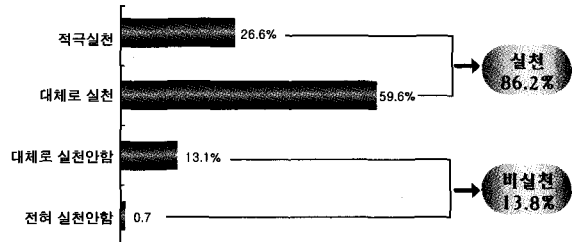


1-2.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실천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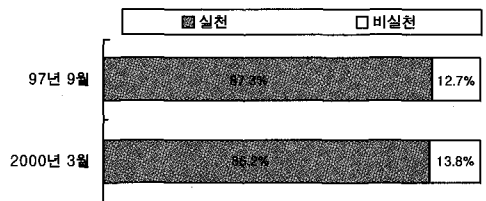
결과분석

□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실천 정도에 대해서 '실천하고 있다'는 긍정적 의견이 86.2%(적극 실천 26.6%, 대체로 실천 59.6%)로 나타남.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 등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홍보와 노력의 결과로 해석됨.

■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실천한다는 응답은 기혼여성(93.7%), 강원 거주자(96.2%), 연령이 높고 소득이 낮은 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반면, 학력이 높은 미혼 남성일수록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은 낮게 나타나 주목됨.



< Base = 1,500 >



1-3. "재활용품 사용 및 자원 재활용"에 대한 실천 정도

결과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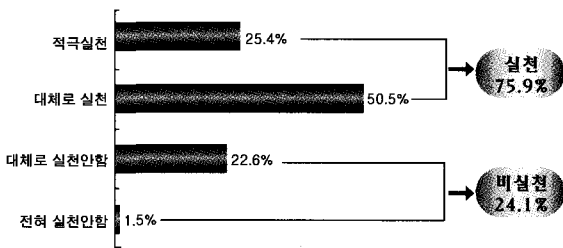
□ "재활용품 사용 및 자원 재활용"에 대한 실천 정도에 대해 알아본 결과, '실천하고 있다'는 긍정적 의견이 75.9%로 조사됨. 다른 환경보전 활동의 실천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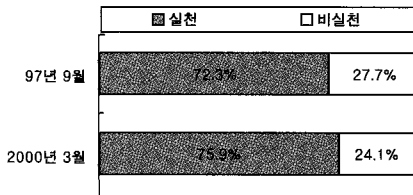
국민환경의식조사

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재활용품 사용 및 자원 재활용"에 대한 경제적·환경적 긍정적 측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자원 재활용'을 실천하고 있다는 의견은 강원 거주자(81.1%), 자영업(80.8%), 기혼여성(82.6%), 연령이 높고 학력이 낮은 계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Base = 1,5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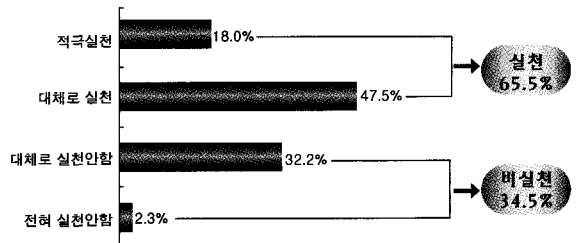
1-4. "세탁, 설거지, 목욕시 저공해세제 이용"에 대한 실천 정도

결과분석

- "세탁, 설거지, 목욕시 저공해세제 이용"에 대한 실천 정도에 대해 '실천하고 있다'는 긍정 의견은 65.5%(적극 실천 18.0%, 대체로 실천 47.5%)로 주요 환경보전 활동 중 실천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됨. 이는 세탁, 설거지, 목욕시 사용하는 세제의 폐해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그 폐해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며, 향후 "저공해세제 이용"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제도·홍보활동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분석됨. 단, 부정

적 의견은 34.5%(전혀 실천안함 2.3%, 대체로 실천안함 32.2%)임.

- 저공해 세제를 이용하고 있다는 의견은 기혼여성(75.0%), 대전/충청 거주자(71.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러나 연령이 낮을수록 저공해 세제 이용정도는 낮게 나타나 주목됨.



< Base = 1,500 >

1-5. "수돗물 아껴쓰기"에 대한 실천 정도

결과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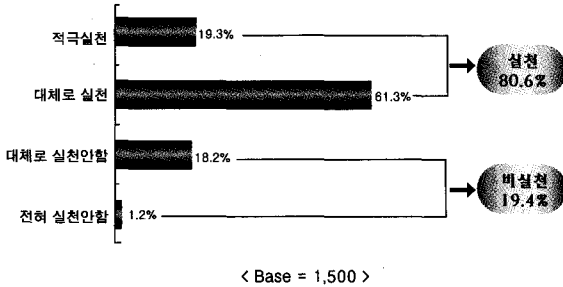
- "수돗물 아껴쓰기"에 대한 실천 정도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84.1%가 '실천하고 있다'는 긍정적 의견(적극 실천 30.0%, 대체로 실천 54.1%)을 나타냈고, '실천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의견은 15.9%(전혀 실천안함 1.2%, 대체로 실천안함 14.7%)로 나타나, 실천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됨. 이는 수돗물 사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직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며, 향후 수돗물 아껴쓰기 캠페인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망됨.

- 수돗물 아껴쓰기를 실천한다는 의견은 기혼여성(89.2%), 연령이 높을수록, 직업별로 자영업 종사자(91.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도표참조]

1-6. "승용차 이용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하기"에 대한 실천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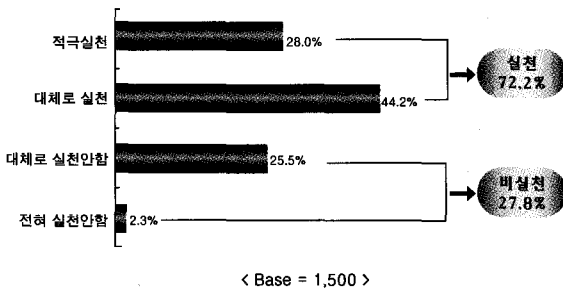
[1-5 도표]



결과분석

□ "승용차 이용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하기"에 대한 실천 정도에 대해 '실천하고 있다는 긍정적 의견은 72.2%(적극 실천 28.0%, 대체로 실천 44.2%)로 나타났고,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부정적 의견은 27.8%(전혀 실천안함 2.3%, 대체로 실천안함 25.5%)로 조사되어, 다른 환경보전 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실천 정도를 나타내고 있음. 향후 "승용차 이용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하기"에 대한 실천 정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정책 마련과 좀 더 적극적인 제도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대중교통 이용'을 실천한다는 의견은 기혼여성(78.9%), 연령별로 50대 이상(83.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반면 고학력 남성일수록 상대적으로 실천정도는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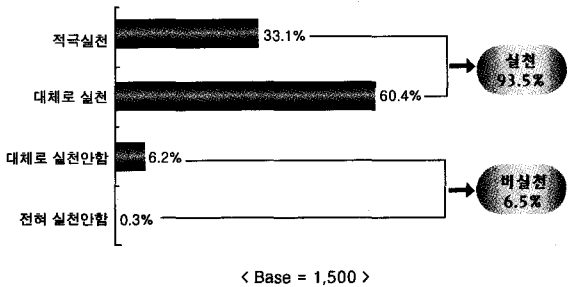


1-7. "자연환경 훼손방지"에 대한 실천 정도

결과분석

□ "자연환경 훼손방지" 실천 정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대부분(93.5%)이 '실천하고 있다'는 긍정 의견(적극 실천 33.1%, 대체로 실천 60.4%)을 나타낸 반면, '실천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의견은 6.5%(전혀 실천안함 0.3%, 대체로 실천안함 6.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연환경 훼손 방지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매우 폭넓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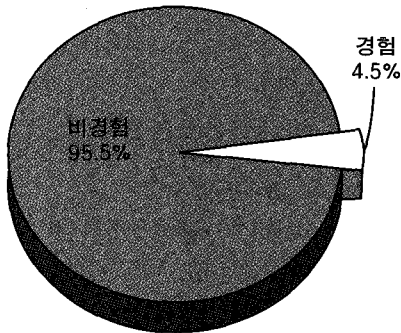
■ '자연환경 훼손방지에 대해 실천하고 있다는 의견은 특히 강원 거주자(98.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2. 환경오염 사례의 신고 경험

결과분석

□ 환경오염 사례에 대한 신고 경험에 대해 질문한 결과, '신고한 경험이 있다는 의견은 4.5%에 불과한 반면, '신고한 경험이 없다는 의견은 95.5%로 나타나, 신고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됨. 이러한 결과는 환경오염 사례에 대한 신고 의식이 매우 낮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며,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제공과 신고 의식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 활동, 그리고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좀더 적극적이며 폭넓게 시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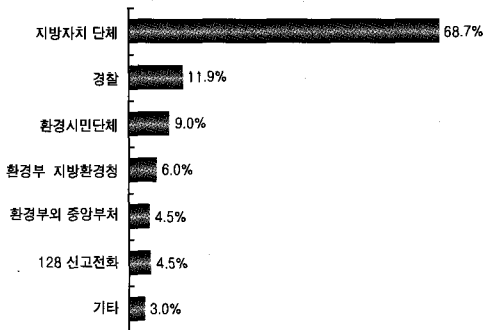


< Base = 1,500 >

2-1. 환경오염 사례 목격시 신고처 (* 중복응답)

결과분석

- 환경오염 사례를 목격하여 신고한 경험이 있는 67명을 대상으로 신고처에 대해 알아본 결과, '지방자치단체'라는 응답이 68.7%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경찰'(11.9%), '환경 관련 시민단체'(9.0%), '환경부 혹은 지방환경청'(6.0%)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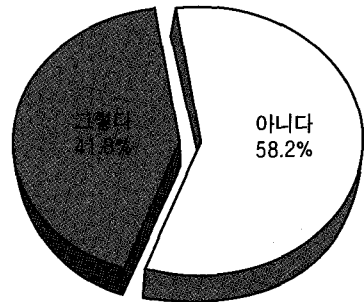


< Base = 67 >

2-2. 환경오염 사례 신고 후 사후처리 결과 통보 여부 (* 중복응답)

결과분석

- 환경오염 사례 신고 후 사후처리 결과에 대해 통보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신고 경험자 67명 중 41.8%가 '통보를 받았'다는 응답을 나타냈고,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58.2%로 조사되어, 신고 후 처리 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통보활동을 통해 일반국민들의 신고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 의식을 높여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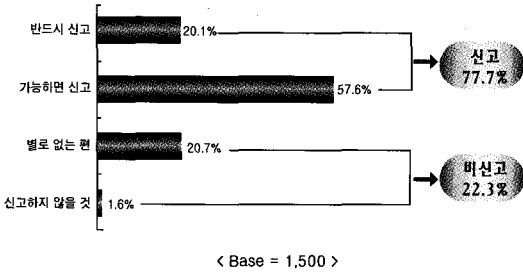
< Base = 67 >

3. 환경오염 행위 목격시 신고 여부

결과분석

- 향후 환경오염 행위 목격시 신고 여부에 대해서 '신고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이 77.7%(반드시 신고 20.1%, 가능하면 신고 57.6%),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22.3%로 조사되어 신고하겠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향후 신고에 따른 신속하고 정확한 결과 통보, 포상금 지급 등 일반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의식 제고를 위한 각종 제도의 마련과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환경오염 행위 목격시 신고하겠다는 의견은 지역별로 대구/경북(82.8%), 인천/경기(85.8%), 광주/전라(81.4%) 거주자, 권역별로 중소도시(83.1%) 거주자, 직업별로 화이트 칼라(81.4%), 자영업(82.5%)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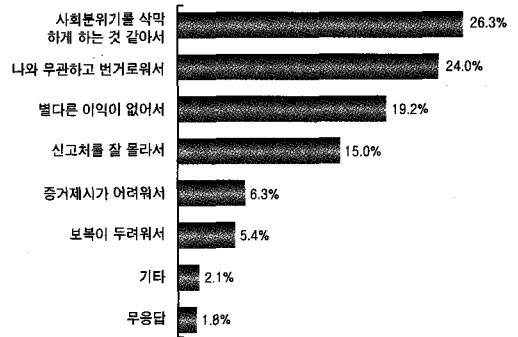
3-1. 환경오염 행위 목적시 신고 기피 이유

결과분석

□ 향후 환경오염 행위 목적시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334명을 대상으로 '신고기피 이유'에 대해 알아본 결과, '사회분위기를 삭막하게 하는 것 같아서'(26.3%)라는 응답과 '나와 관계없는 일이고 번거로우므로'(24.0%)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신고해도 별다른 이익이 없으므로' (19.2%),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몰라서'(15.0%)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사회분위기를 삭막하게 하는 것 같아서'라는 의견은 연령이 높고 학력이 낮을수록, 부산/경남(33.3%), 대전/충청(34.8%) 거주자, 화이트 칼라(31.8%) 계층에서, '나와 무관하고 번거로운 것 같아서'라는 의견은 대구/경북 거주자(43.3%), 권역별로 군지역 거주자(45.3%), 미혼자(28.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향후 국민 신고의식 제고를 위해 환경오염이 모든 사회구성원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적극적인 홍보노력이 요망됨.



3-1. 환경오염 행위 목적시 신고 기피 이유

결과분석

□ 지난 '96년 1월 실시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중앙일보」 공동 조사(27.3%)와 97년 9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6.9%)에서는 환경오염 행위 목적시의 신고 기피 이유에 대해 '신고기관의 위치나 연락처를 몰라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항목	2000년 3월	2001년 3월	2002년 3월
	응답률	응답률	응답률
사회분위기를 삭막하게 하는 것 같아서	26.3%	-	-
나와 관계없는 일이고 번거로우므로	24.0%	10.35	-
신고해도 별다른 이익이 없으므로	19.2%	-	-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몰라서	15.0%	26.9%	27.3%
증거를 제시하기 어려우므로	6.3%	-	-
보복이 두려워서	5.4%	22.0%	19.6%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판단되서	-	9.2%	9.9%
고발을 하면 귀찮아질 것 같아서	-	22.6%	18.1%
기타	2.1%	2.2%	10.5%
무응답	1.8%	-	-

다음호에 계속...